



협회 일 보



제915호

2026.07.31.(금)

'26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 공시

- ◇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실적신고액 1조 6천억원, 전년대비 2.8% 상승
- ◇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부문 실적은 9.2% 감소, SOC 사업 및 재난 복구 사업 등으로 공공 부문 실적은 11.7% 상승

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와 한국건설자원협회(회장 김동구)는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'26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를 7월 31일 공시했습니다.

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'26년도 평가액은 총 2조 1,996억으로 지난해 평가액(2조 1,288억) 대비 3.32% 증가했으며, 지난 '22년도 이후 연평균 약 2.7%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실적액의 경우 총 1조 6,090억 원으로 전년대비 2.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, 특히 민간부문 실적액은 전년 대비 9.2% 감소하였으나, 관급부문 실적액은 전년 대비 11.7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건설경기 침체로 재건축·재개발 등 민간(사급) 실적액은 감소한 반면, 정부의 SOC사업 추진과 산불 피해 지역의 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관급 실적액은 증가했습니다.

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실적평가액(3개년도 평균 실적액의 70%)은 1조 1,443억 원, 자본금 평가액과 환경오염방지능력 평가액은 각각 4,202억 원, 2,642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며, 경력 평가액은 2,263억 원, 기술능력 평가액은 1,458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.

금번 용역이행능력평가는 총 599개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제출한 78,312건의 실적신고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으며,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14.2% 정도 줄어든 실정인데 이는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로 민간부문의 실적 신고가 줄어든 결과로 보입니다.

'26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 관련 사항은 7.31(금)부터 한국건설자원협회 누리집(www.koras.org)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.